

아름다운 야간관광 명소 눈도장

무주반딧불축제·무주산골영화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은 잠재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전국의 야간관광 지원을 발굴해 국내 야간관광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시설중심형, 경관관람형, 체험활동형, 엔터테인먼트형 등의 테마별, 그리고 도심형(광역시도 소재)과 준도심형(시군구 단위), 농어촌형(바다, 숲, 농촌 등 소재) 등 지역별로 나뉜다.

모두 체험활동형·준도심형에 선정된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는 야간관광 지원의 지역특화성과 매력성, 성장가능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년 역사를 자랑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소재로 개최되는 환경축제로, 해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반디별 소풍(별보기 체험)'과 '나화놀이', '드론쇼', '불꽃놀이', '버스킹' 등 '밤夜'을 겨냥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무주반딧불축제의 핵심이자 무주군 대표 체험관광 프로그램(탐사객 한 해 8천여 명)으로 꼽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깊은 밤 반딧불이 서식지를 찾아가 직접 반딧불(반딧불)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다.

이가 내는 불빛'을 볼 수 있는 체험으로, 올해 축제에는 탐사 예약을 위해 20여만 명이 일시에 몰려 그 인기를 실감했다.

올해로 11회를 치른 무주산골영화제도 국내 야간관광 활성화를 주도할 자원으로 꼽혔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초여름 낭만영화제로 정착해 온 무주산골영화제는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영화제, 대규모 국제영화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이는 영화제로 2016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육성지원사업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성을 쌓아 왔다.

특히 덕유산국립공원과 등나무운동장, 한풍루 등지에서 진행하는 야간영화 상영과 공연은 야외를 특화한 무주만의 공간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

으며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토크와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도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오해동 과장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이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무주가 전북, 나야가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들을 찾고 알리고 활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딧불이가 수놓는 무주의 밤은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며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을 계기로 알려지게 된 자원뿐만 아니라 숨겨진 야간관광 지원들을 발굴해 아름다운 무주의 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동계 조사료 트리티케일 재배 확대

장수군의 동계 조사료 트리티케일 재배면적이 120㏊에서 180㏊로 확대되면서 축산농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동계 조사료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작물로, 가죽이 좋아하는 밀의 품질과 추위에 잘 견디는 호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죽의 활동력과 지구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옥타코사늘과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이소오리엔틴 함량이 높고, 조사료의 영양적 가치 척도 종합이 매우 높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상호 간의 공동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조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트리

티케일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트리티케일 재배면적 확대에 대비해 보급증 제종포를 7㏊에서 16㏊로 확대운영하며 종자 공급량 확보도 원료했다.

이어 월동철 고포밀 조사료 안정생산을 위해 지역 내 축산농가에 동계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재배관리 및 서리발 및 건조피해 방지를 위해 뿌리를 토양과 밀접시키는 진압작업을 농가에 당부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장은 "우수한 국내 육성 동계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재배 확대를 통해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사료비를 절감해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 쿨밸리페스티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은상' 수상

장수 쿨밸리페스티벌이 지난 10일 광주 리마디포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제17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시상식에서 신규 축제 개발 부문은상을 수상하는 패거를 거뒀다.

세계축제협회가 주최하는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 축제 올림픽으로 매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회다. 한국대회는 미국 본선에 대한 예선전으로 국내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제1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은 국내 최초 계곡을 활용한 축제로 2천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오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새로운 문화 창출 기회를 제공해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10일 진안 사통팔달센터에서 진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준공을 알리는 '진안 사통팔달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진안 사통팔달센터' 개관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진안군은 지난 10일 진안 사통팔달센터(진안읍 성산2길6)에서 진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준공을 알리는 '진안 사통팔달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진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국 최초의 통합지구 사업으로 읍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133억 7000만원(국비 84억, 지방비 49억 7000만원)이 투입돼 진안 사통팔달센터, 초록문화총전소, 상상공유소, 세모네모 도서관을 신축했고, 주민을 위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터미널 정비, 민남쉼터 개선, 흥보 마케팅, 컨설팅, 주민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제287회 마이학당 원광대 김정배 교수 강의

진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강당에서 원광대학교 김정배 교수를 초청해 '나는 시를 모른다. 누구라도 그려하듯이(詩)를 주제로 제287회 마이학당을 개최했다.

강의에는 시와 음악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및 일반주민 등 2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김정배 교수는 진안군 출신으로 원광대 교직으로 재직 중이며 글미음 조각가라는 별칭으로 시인, 문학평론가, 작가, 공연시나리오 작가로 활성한 활동 중이다.

강의는 인문밴드레이가 기타와 바이올린으로 '낭만에 대하여(최백호), To heaven(조성모)' 등 대중의 귀에 익숙한 음악을 연주하고 강의의 어우러진 '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시적인 사유를 통해 바라보는 나다움이 무엇인지, 왜 우리 삶에 예술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들로 다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금강유역환경청

나무심기 행사 성료

장수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일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506-1 일원에서 '202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행사는 환경부 매수 토지의 생태계 복원 등 효율적인 수변 생태 환경을 조성해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보전협회, 장수군,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장수읍 두산리 일원 13필지 11,725㎡ 규모에 단소흡수종인 은행나무 63주, 복자기 45주를 심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약 36g의 미세먼지를 흡수해 나무 47그루면 경유차 1대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다.

군은 연말까지 소나무 92주, 팽나무 등 낙엽교목 265주, 꼬리조팝나무 등 낙엽阔목 13,240주를 심어 기존 과수원이었던 곳에 금강 본류와 어우러지는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장수=고픈호 기자

진안군, 모바일 스템프 투어로 관광 활성화 견인

진안군은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간 추진한 '모바일 스템프 투어'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모바일스탬프 투어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지정된 마이산도립공원과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편백숲산립목장, 운일암반일암 등의 주요명소를 흥보하기 위해 운영됐다.

스탬프 투어는 어플을 통해 지정된 정소에서 스템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템프 5~30개 획득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다. 또한, 후기를 인증하거나 진안군 관광지를 메타버스로 함께 경험한 관광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추가 지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모바일스탬프투어 장소를 전년도 35개에서 40개로 보완 및 추가

했으며, 기념품 또한 마이산·홍삼 비누, 미스크팩, 차량용청소기 등 다양하게 준비해 전년대비 기념품 신청자가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인증 수는 연인의 길, 기와박물관, 꽈지문화체험관, 진안 역사박물관, 명인명품관 순으로 많았다.

진안군은 모바일 스템프 투어 참여자 중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았던 점을 참고해 내년도에 관광지를 보완하고, 관련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길 관광과장은 "이번 스템프 투어를 통해 숨겨진 관광명소를 더 알릴 수 있었다"며 "체류형 관광으로까지 이어져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